



##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친환경 산업

### 1. 지난 해 대비 +8.5% 확대된 21년 예산안

- 전일 정부는 21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지출 예산은 총 555.8조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한 규모의 확장적인 예산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늘어난다는 부담은 있지만, 정부 입장은 이를 감안 하고라도 능동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 2. 예산안에서도 드러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 이번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그리고 환경 부문의 예산 증액이 지난 해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이번 예산안의 10대 중점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기존에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추진
-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부문 등도 강조되고 있음

### 3.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 고조

- 한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경제권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관련된 상품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
- 미국에 상장된 친환경 ETF들은 올해 S&P500 지수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 유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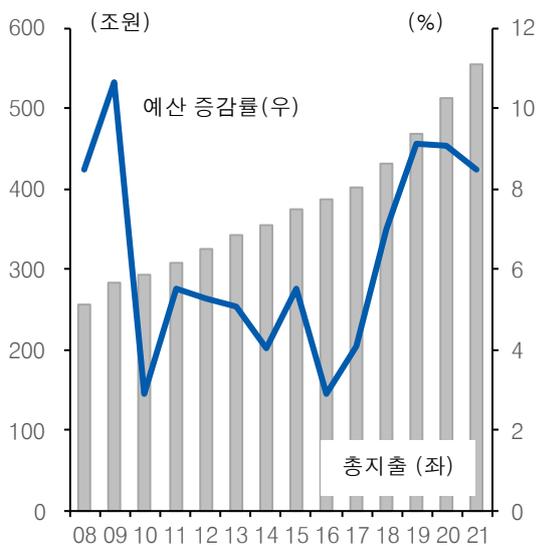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지난 해 대비 +8.5% 확대된 21년 예산안

전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국회에 제시된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게 된다.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2일)까지 의결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예산안의 최종 확정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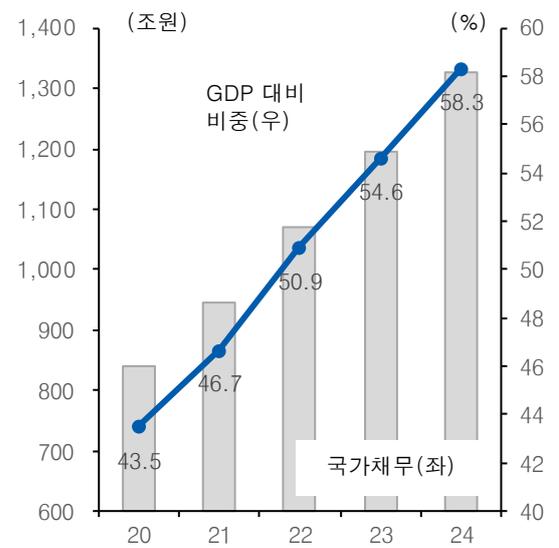
정부안은 총 555.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 대비 +8.5% 늘어난 수준(추경 감안 시 +1.6%)이다. 최근 2년 연속 9% 대의 예산안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총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확장적인 예산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년 연속 지출규모가 수입 규모를 넘어서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며, 지출 증가율에서 수입 증가율을 차감한 확장 재정 수준은 +8.2%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같은 확장적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높이는데 20년 추경 포함 부채비율은 GDP 대비 43.5%이며 내년 46.7% 그리고 24년에는 58.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채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차트1] 내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책정



자료: 정부보도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확장적 재정정책은 결국 채무의 증가를 유발하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



자료: 정부보도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 고조

과거 자료를 통해 한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산업/경제적인 측면의 목적성을 가지고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그 같은 의지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친환경 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파리 기후협약 적용을 앞두고 가속화되기 시작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친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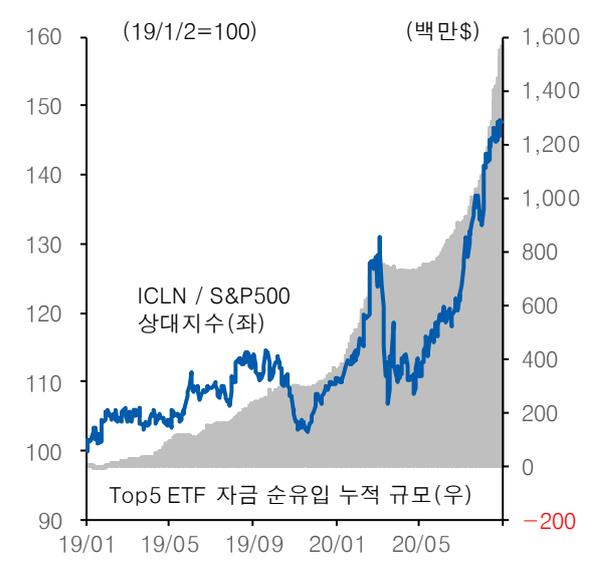
[차트 5]에 제시된 ETF들은 미국에 상장된 자산 규모 Top 5 친환경 ETF들이다. 수익률 측면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ETF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도라고 볼 수 있는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 보면 친환경 테마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모습 한가지가 각 ETF들의 수익률 편차가 꽤 존재한다는 점인데, 재미있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특화된 ETF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지만, 에너지의 공급과 활용, 즉, 전기차나 수소차, 연료전지 등 보다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 ETF(인베스코 월드윌,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에너지 등)의 수익률이 보다 우월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산업 내의 다양한 분야가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인 만큼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는 친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트5] 미국 증시 상장된 주요 친환경 ETF 들의 퍼포먼스. 다양한 종목군을 포함한 ETF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음

ETF 명	자산 (백만\$)	YTD 수익률 (%)
ISHARES GLOBAL CLEAN ENERGY	1338	46.5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644	66.9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483	74.9
ALPS CLEAN ENERGY	375	60.4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FUND	191	20.5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ISHARES CLEAN ENERGY ETF의 S&P 지수 대비 상대 주가와 Top 5 ETF 로의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상승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